



제 5단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구원의 확신!

롬 10: 1-21

2009. 10. 28 (수), 31 (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1. 십자가 신학 :

십자가의 주제로 신앙과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묶는 것
(성경의 내용도, 구원의 확신도, 삶의 자세도)

*우리들의 문제 :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이해 또는 오해
특히 삶이 십자가와 분
리되어 있다.

2. 신앙의 형상 과정 :

- 1) 다발로 형성됨.
- 2) 다발을 이루는 알맹이는 논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에 의해
서 형성됨.
- 3) 핵심 알맹이들은(core beliefs) 전적으로 감정적으로 형성됨.
이는 타당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음.
- 4) 교훈
가. 모든 다발들은 서로 연결되거나 하나가 되어야 함.
나. 핵심 알맹이는 없어야 함
다. 진리 앞에서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3. 성경과 십자가

성경 전체 주제 : 하나님의 나라

길 : 십자가

주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 :

광야의 시험 :

가르치심 : 산상 수훈(특히 8복)

예) 8복과 로마 제국
의 비교
하나님의 나라/
애통함/
온유/
공홀/
의/
화평케 하는 자/
청결/
핍박당함/

사역 : 십자가와 부활

4. 구원의 확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은?

- 1) 신비한 은사(예. 방언)
- 2) 지적인 깨달음(Intellectual assent)
- 3) 개인의 결단 :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함.
- 4) 감정적 체험 : 확신이 다가와야 함.
- 5) 이 모든 것이 다 맞음.
- 6) 이 모든 것이 다 안 맞음.

루터의 대답 :

- 1)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 2) (언제)_____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

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벌을 당하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롬 6:23)

② 십자가 지심

아울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 46)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등을 돌리심(turning away)을 경험하심.

그러나 그 때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나심.

③ 죄의 대가 치르심

이러한 신비한 교환의 조건에 따라, 기독교인의 모든 죄는 다 예
수에게로 넘겨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심(병자에 대한 사랑, 무리에 대한 동정,

유혹을 이기심,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를 물리치심...)은

기독교인에게 넘겨짐.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듯 기독교인도!

이제 기독교인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아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등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심.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

‘객관적 의인(objective justification)’이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

이 때 우리의 구원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짐.

④ 나의 십자가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가짐.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을 예수가 몸에 짊어지셨음.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용서 또한 객관적임.
이것이 복음!

5. 믿음은 무엇?

믿음도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아도 왜곡되게 알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믿음을 가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은총.

6. 믿음을 갖는 두 통로, 즉 은총의 통로는?

_____과 _____

1) 말 씀 :

언어를 통해 관계가 이루어짐.
언어는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음.
기독교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임.
성경만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성도의 간증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① 말씀과 교회

말씀이 교회에 앞섬.
롬 10: 14,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으로 말미암음이니라.”

② 은총의 수단

성경은,

은총의 수단으로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전함.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새겨주심.

③ 말씀의 내용

말씀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 뜻, 요구, 심판을 계시함.

성경의 이 부분을 읽는 것은 곤혹스러운 경험.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약속을 계시함.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이 만남은 엄청난 두려움.

정직한 독서는 우리로 죄의식 절망을 경험토록 함.

하지만,

이 만남은 동시에 치유함.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2) 성찬 : 세례

성경 자체는 다른 은총의 수단을 말하고 있음.

바로 세례와 성만찬.

세례-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며,

성만찬- 그리스도께서 물과 포도주로 함께 하심을 상징함.

잉크로 적힌 글(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듯,

떡과 포도주와 물이 성령과 예수를 나타냄.

세례는,

개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구체적으로는 죽음과 부활로 연합함.

물론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물 자체가 아니라 물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

유아들의 세례 :

유아들은 이해할 능력이 없음. 그러나 믿음은 있음.

믿음이란 지적 능력이나 결단이 아님. 믿음은 신뢰임.

아기는 부모를 신뢰함.

아기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도 신뢰할 수 있음.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의 확신으로 갈등할 때 :

루터의 대답 : 의심, 두려움, 심지어 절망이 생겨날 때 자신의 내면을 보지말 것.

내면을 보면 더 갈등을 가질 수 있음. 은총은 객관적 사실.

7. 객관적 십자가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는 길은?

말씀과 성례를 통한 _____의 역사

8. 십자가 신학(The Theology of the Cross)과 영광의 신학(The Theology of Glory)

1) 많은 영성서적들이 '성공'을 다루고 있음.

적극적 사고 방식, 요가, 명상....

자아에 강조를 두며, 자아 실현, 자아 성공, 자기 독립을 위함.

이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며 영적인 독립과 자족감을 얻으려고 함으로,

영적인 삶을 통제하도록 함.

따라서

스스로의 성취와 업적을 얻기 위해,

율법의 종교와 영광의 신학을 원함.

2) 영광의 신학 :

치유와 성공을 약속함.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함.

하나님과 고난이나 불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믿음.

고난은 오히려 저주의 상징으로 여김.

기독교인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가정함.

하나님은 치료와 성공과 번영의 하나님이라는 가정임.

문제점 : 실제로 해답이 아님.

3) 십자가의 의미 :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왕이 아니라 목자로 사셨음.

대중에게 인기도 없으셨고 비난받으시고 집도 없이 사셨음.

(사 53장)

우리도 주님처럼 훗날에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지만,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

십자가의 신학이 더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영적으로 역동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형성함.

가)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 자체를 영적인 깨달음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음.

십자가의 신학은 금욕주의가 아님. 즉, 육신에 고난을 더함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님. 금식, 괴로움, 자기 해침들은 고통은 가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영광의 신학을 말함.

십자가는 결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님.

이는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임.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말함.

나) 일상적인 삶에서 다가오는 좌절.

예를 들어, 환자의 병과 같은 것이 아님.

십자가의 신학은 결코 고난에 대해 쉽게 답을 주거나,

나쁜 일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음.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고통.

이는 위대한 성자들에게 주로 다가옴.

루터의 대답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함.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임.

따라서 모든 시련들은 바로 믿음을 실천할 기회들.

다)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은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임.

라)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십자가 신학이란?

시련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

성화는 쉬운 과정은 아님.

실패, 거짓, 위선, 의심, 이기적 교만, 육신의 은밀한 죄 등이 교회에서 항상 일어남.

루터 : 옛 사람과 새 사람 간의 갈등.

우리에게는 비록 새 성품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옛 죄악의 본성은 남아 있음.

새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함.

죽을 때 이 갈등이 사라질 것.